

대중문화로 영역 넓히는 '페미니즘'

영화·미술·광고 등 다양한 영역... 이론서 비해 일반인 접근 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여성학 도서로는 아마도 시몬느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문구로 유명한 이 책이 집필된 시기는 1940년대. 당시만해도 파격적인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에 가까운 반응을 얻었던 이 책이 지금은 여성학의 고전이자 입문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서구에서는 6, 70년대 일련의 사회운동과도 맥을 같이하면서 ‘학문’으로서보다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위상을 높였던 여성학은, 국내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여성학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고 관련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학 인기도 급증했다.

여성학 인구의 다양한 활동폭 반증

여성학 도입 초기만해도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여성문제에 접근한 도서들이 주류를 이룬 데 비해 최근 들어서는 문학을 비롯해서 미술, 영화, 연극, 그리고 매스컴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의 여성학 인구의 다양한 활동폭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성학계의 성숙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문학서로는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지닌 작품들을 모아 엮은 문학선집이 적잖이 눈에 띈다. 「나는 여기 다리미질을 하며 서 있다」(수전 케일 엮음)와 「세계 페미니즘 단편선-19호실로 가다」(서숙 외 엮음)는 버지니아 울프, 엘리스 위커, 나딘 고디머 등 여성작가들의 중·단편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영미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집트와 남아공, 인도에 이르는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을 망라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하웅백 엮음)은 강경애에서 박완서, 윤정모, 오정희, 신경숙 등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현석, 안재성, 엄우홍 등 ‘운동권’의 작품들도 ‘여성주의적 고발문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페미니즘적 요소와 문학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위주로 한 이들 문학선집 외에도 「세계여성소설걸작선」(조안나 리스 외 지음)이라는



「살아있는 미국 여성미술가들」(1972, 메리 베스 에델슨 작) ‘최후의 만찬’ 왼쪽부터 미국 여성미술가들의 얼굴사진을 콜라주했다.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중.

이름의 문학선은 SF소설만을 모아놓아 이채를 띤다. 이른바 ‘페미니즘 SF’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이 책은 미국 중심의 여성 SF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특히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문체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여행이나 우주개발, 사이버 펑크 등 이제까지의 SF소설의 단골소재에서 탈피해 독특한 소재와 배경의 SF를 보여주고 있다. 에컨대 성별이 환경에 따라 결정되거나 성전환이 쉬운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그린다가, 여성이 학대받는 ‘여성 디스토피아’의 참상을 묘사하는 등 다른 장르에서는 얻기 힘든 신선한 ‘읽는 재미’를 준다.

영화·미술·광고 등 분야로 확대

요즘 많이 읽히고 있는 영화도서 중에도 페미니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페미니즘/영화/여성」(유지나·변재란 엮음)은 이 방향의 물꼬를 튼 ‘페미니스트 영화’ 입문서다. 80년대 이후 비제도권의 페미니즘 영화제작 소집단과 여성단체 문화기획물로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가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영화 비평이 소개돼 이미 분위기는 조성됐다는 것이 엮은이들이 말하는 출간배경이다. 이들은 또한 페미니스트 비평을 하나의 영화비평의 방법론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페미니즘은 여권운동의 전용어이거나 보수적인 남성중심주의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위협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 페미니스트

영화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작가분석, 작품분석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페미니스트 비평의 한 예를 소개해보면, 「에이리언」은 탐욕스런 에이리언(남근괴물)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적이고도 정서적인 힘을 동원해야 하는 강한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페미니스트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영화로 읽는 여성의 삶」(이영자 지음)은 성과 사랑, 사랑과 결혼과 일, 가족제도와 여성, 성폭력 등 여성문제의 중요한 항목별로 해당작들을 분석하고 있다. 「우묵배미의 사랑」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까미유 끌로델」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피고인」 등 국내외 영화를 골고루 망라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출간된 「시네-페미니즘」 대중문화 꼼꼼히 읽기(김소영 책임편집)는 기존의 이 방향의 책들이 헐리웃 고전영화나 실험적 페미니스트 영화분석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면서 「양들의 침묵」 「텔마와 루이스」 「별들의 고향」 「그대안의 블루」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히트작 「인어공주」는 인어공주의 변신과정에서 「고통과 피」를 삭제함으로써 사랑을 위한 삶이나 아름다움의 발휘를 위해 여성들이 치러야 하는 실제적인 대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술에서도 여성학적 접근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T. 구마 피터슨·P. 매튜스 지음)는 여성학적 시각에서 서양미술사를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에 의하면 페미니즘 미술비평과 미술사는 최근여야 부상한 현상으로, 아직도 여성미술가에 대한 논의나 논문은 드물고 그나마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한다. 같은 출판사에서 「여류거장들」 「시각예술과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미술사」 등 시리즈물을 준비중이다.

우리 현실 반영한 각 분야 이론서 기대

매스컴과 광고 분야에서의 여성학 논의도 지나칠 수 없다. 「대중매체와 페미니즘」(원용준 외 엮음)은 대중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중문화는 TV로 대표되는 영상문화를 일컫는데, 이같은 대중매체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소비주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부장제에 종속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중매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력의 주체는 여성으로, 드라마나 광고에 나타나는 진보적인 여성 이미지까지도 교묘하게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섹스어필 광고, 섹스어필 미디어」(윌슨 브라이언 지음)는 광고를 통해 미디어가 인간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고, 그 주요 수단이 여성을 매개로 한 성적 이미지임을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수많은 광고들에게 이러한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는 리츠 크랙커의 경우, 앞면이 보이도록 한 줄로 늘어놓으면 각 크랙커의 양쪽면에 ‘SEX’라는 단어들만 모자이크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L SE OULE E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EDITORIAL DE SIGNS

SCHOOL SE OULE E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EDITORIAL DE SIGNS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35-4450(100*)

편집교육을 국내최초로 본격화시킨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 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판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과정 중 학생들과 담임강사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은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의 추천교육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교육기관으로 위촉(88.12.28)하였습니다.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고 있습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책소 인쇄소 등을 견학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뜰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장된 취업을 목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생의 95%가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지, 단행본 등 기별 과정별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인 정규과정중 기본과정 이수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원스쿨

문의(代) 672-1841,2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

90년대 이르면서 우리나라 여성학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초기엔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접근한 도서들이 주류를 이룬 데 비해 최근 들어서는 영화와 연극, 미술 그리고 매스컴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련의 대중문화로까지 파고들며 등장한 '페미니즘' 도서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을 알려주기도. 이밖에도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페미니스트 연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신과 가능성의 무대」(헬렌 케이사 지음,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여성사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기술한 「세계여성사」(G. 트뤼프 지음),

탈마르크스주의라는 20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이론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영국 좌파 페미니스트의 동향을 소개한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미셸 바렛 외 지음) 등 최근의 번역서들도 여성학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보여준다. 여러 분과학문 중 후발주자로서 여성학이 갖는 장점의 하나는 다른 분과학문과의 접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여성학의 최근 경향이 이전의 인문·사회과학적 접근방법에서 문학, 영화, 미술, 연극, 광고 등 일련의 대중문화 영역까지 망라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몇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대중문화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여성학 관련서는 이전의 이론서들에 비해 읽기에 부담이 적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개론서 수준의 번역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 사회현실을 반영한 이 방면의 실득력 있는 이론서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소연>

국내 '페미니즘' 관련도서 목록

- 문학**
- 「페미니즘과 문학」/김영규 외 옮김/문예출판사
 -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소영·전정호 편역/한신문화사
 - 「페미니스트시학」/텔레나 마키 지음, 김경수 옮김/고려원
 - 「여성해방문학의 논리」/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창비
 - 「나는 여기 다리미질을 하며 서 있다」/수전 캐힐 엮음, 이소영 외 옮김/한신문화사
 - 「세계 페미니즘단편선」/서숙 외 옮김/민음사
 -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하응백 엮음/책나무
 - 「세계여성소설결작선」/조안나 러스 외 지음, '멋진 신세계' 옮김/여성사
- 영화**
- 「페미니즘/영화/여성」/유지나·변재란 엮음/여성사
 - 「영화로 읽는 여성의 삶」/이영자 지음/서울YMCA출판부
 - 「시네-페미니즘 대중문화 꼼꼼히 읽기」/김소영 책임편집/과학사상

- 미술**
-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T.구마 피터슨, P.매투스 지음, 이수경 옮김/시각과언어
- 연극**
- 「변신과 가능성의 무대」/헬렌 케이사 지음, 이형식 옮김/여성사
- 매스컴**
- 「성표현 광고와 규제」/A.E.코트니, T.W.휘플 지음, 허갑중 옮김/나남
 - 「광고와 에로티시즘」/김덕자 편저/미진사
 - 「대중매체와 페미니즘」/원용준 외 엮음/한나래
 - 「섹스어필 광고, 섹스어필 미디어」/윌슨 브라이언 지음, 허갑중 옮김/책과길
- 기타**
-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제프리 워스 지음, 서동진·채규형 옮김/현실문화연구
 -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미셸 바렛 지음, 신현옥 외 옮김/여성사
 - 「세계여성사」/G.트뤼프 지음, 이재형·도하진 옮김/문예출판사